불법투기 몸살 전남 유명산 '쓰레기산' 우려

광양 백운산 528t·고흥 팔영산 319t 등 8곳 1년간 1016t
얌체 등산객들 슬그머니 버리고 가…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전남지역 유명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등산객들 발길이 뜸한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불법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워낙 넓은데다 단속 인력도 많지 않은 점 등을 노린 무단투기꾼들로 '쓰레기산'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탐방객들이 다녀가면서 놓고 간 쓰레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적발한 폐기물은 모두 1만7417 t에 달했다.

전국 '100대 명산'은 지난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해 산림청이 학계, 산악계, 언론계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천받은 산 ▲산악회 및 산악 전문지가 추천하는 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산 등을 대상으로 산의 역사, 문화성, 접근성, 선호도, 규모, 생태계 특성 등 5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심사 후 선정했다.

광주·전남에는 광주 무등산(1186.8m), 구례 지리산(1915.4), 영암 월출산(810.7), 해남 두륜산(700), 장성 방장산(733.6), 광양 백운산(1222.2), 순천 조계산(887.3), 장흥 천관산(724.3), 담양 추월산(731.2), 고흥 팔영산(606.9), 신안 깃대봉(360.7) 등 총 11곳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무등산·지리산, 월출산 등 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남지역 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됐다.

전남 8개 유명산에서 발견된 폐기물 쓰레기는 모두 1016.7t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양 백운산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견됐다. 백운산에서는 25건(건축폐기물 5건·산업폐기물 4건·불법시설물16건 등)의 528.3t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특히 백운산 쓰레기양은 전남지역 조사 대상 유명산에서 발견된 쓰레기 용량의 절반이 넘는 528.3t에 달했다. 전국에서도 11번째로 쓰레기량이 많았다는 게 최 의원측 분석이다.

주봉을 중심으로 하여 또아리봉과 도솔봉, 매봉, 억불봉 등 산세가 웅장하며 경관이 수려하고, 억새풀과 철쭉 군락, 온·한대 900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백운산이 '쓰레기산이' 돼버린것이다.

이어 고흥 팔영산 (10건·319.1t), 해남 두륜산(11건·82.8t), 장흥 천관산(10건·64.9t), 장성 방장산(2건·15.8t), 신안 깃대봉(4건·4.9t), 순천 조계산 (2건·0.9t), 담양 추월산(0t) 순이었다. 담양의 추월산은 발견된 쓰레기가 없었다.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역 안팎의 평가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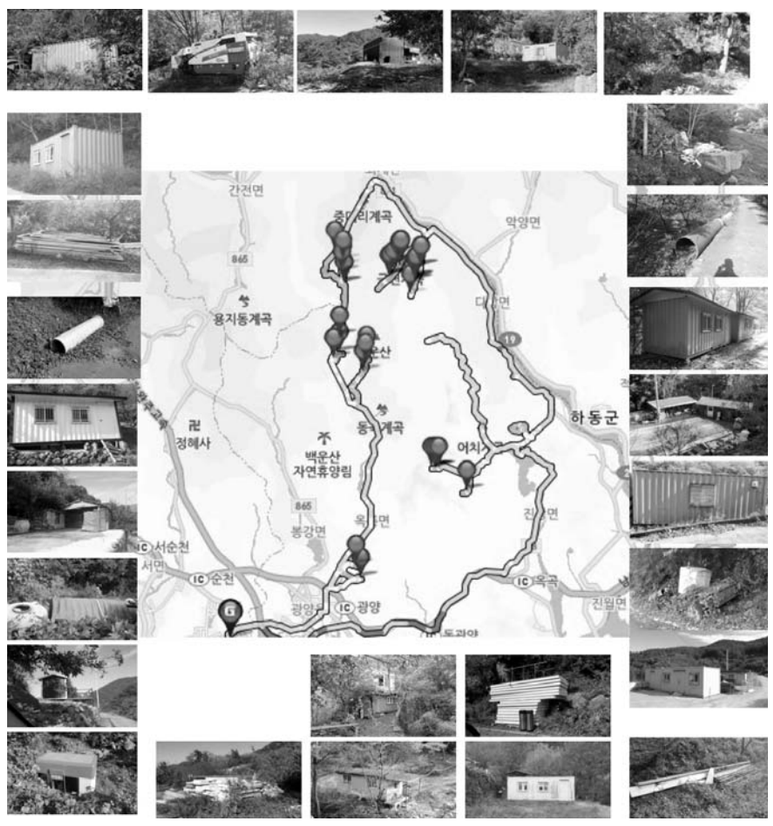
쓰레기가 발견된 장소는 대부분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지가 근접한 저수지 근처 및 임시도로 입구 부근이었다. 통행이 제한적인 임도의 경우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탐방객들의 불법투기 쓰레기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 방법의 특성산 넓은 산의 모든 범위를 다 조사 하지 못하고 이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 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는 2~3명 조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실제 명산의 주요 등산로, 주요 계곡, 임도 주변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에서는 쓰레기 종류를 생활쓰레기, 건축 폐기물, 산업폐기물, 불법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고 물량을 산출해 현장사진을 수집한다. 또 현황 자료는 GPS 위치정보까지 현장조사용 어플에 기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2020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100대 명산의 불법시설물 철거 및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에 포함된 광양 백운산 조사 결과 사진. 중대리에서 병암 폭포 방면 임도변, 금천계곡 임도변, 백운사 주변, 황동리 웅봉회관 주변에 폐기물이 많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내용 캡쳐〉

최인호 의원은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 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공·사유림에서 무단 폐기 및 불법시설물 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지원단이 모니터링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인 당 15만원 받고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벌금 2000만~3000만원

1인당 15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여성들이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무면허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무면허 시술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한 게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사 면허 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A(여·59)씨와 B(여·3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신고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눈썹 문신을 무면허로 시술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바늘과 문신용 염료, 항생제 등 수백개도 몰수했다.

이들은 정부가 눈썹문신을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16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3개월 넘게 영업하면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등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삼성전자 산업재해 은폐 정황

국감서 사고성 재해 10여건 등 미보고 지적…광주고용청 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 파문이 일고 있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국 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사고성 재해 발생 은폐 의혹과 관련, "저희가 보기에도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 미보고 사건과 은폐 정황이 서로 연계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4곳에서 사고성 재해 10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임 청장은 "사고성 재해 외에도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이 포착됐다"며 "역시 은폐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힘이 약한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광주노동청 주관으로 노사가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8월 광주소재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사고성 재해 10여건을 파악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면서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발생 보고와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664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아차 취업사기' 경찰 부실 수사 파장 확산

피해자 축소·공범 수사 소극적
집회 열고 "국감서 적극 다뤄야"

기아차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축소해 조사를 마무리하는가 하면, 공범에 대한 수사조차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대기업 취업에 목을 맨 취업준비생들을 노린 범죄로,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수십여명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는 현수막을 들고 경찰의 기아차 취업사기의 미흡한 수사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피해자들이 600명이 넘는데도, 고작 10명이 넘는 피해자만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되는 목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아차 채용원서만 수백장인데 경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용원서를 확보하지 않은 만큼 채용원서를 어떤 경위로 보내게 됐는지 등을 확인해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범행 수법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책위는 또 "기아차 취업사기에는 경찰이 구속한 A목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목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많은데도, 경찰은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는 19일부터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도 집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직접 확보한 200여명의 채용원서와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해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매일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목사는 222명에게 21억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박 조장 '카지노 술집' 입건

광주 서부경찰은 술집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점 업주 A(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텍사스홀덤'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칩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를 통해 모은 포인트는 술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카지노펍이나 홀덤펍 등의 상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카지노 술집'은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블랙잭, 바카라, 홀덤 등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금액에 따른 칩을 제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불법 도박과 카드 게임의 경계선에 있어 경찰은 우선 '도박장 개장' 혐의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물건

공장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